

영웅

Held

1. 어원 및 개념정의

영웅(Held)은 고고지독어 helido, 중고지독어 helt에서 발전한 단어이다. 많은 영웅들은 신의 위치에 가까이 가 있다. 신화, 전설에 등장하는 영웅으로서 인간과 신의 자손이다. 이를 뜻하는 단어 Heros는 옛 그리스어 „ήρως“에서 유래하며 미개사회의 문화적 조건을 개선시켜 승양받는 신화적 존재로서 문화영웅(Kulturheros)이다. 그러나 신화적 영웅은 항상 모범적인 인물이지만은 않다.

영웅은 주로 역사와 성담, 전설의 주인공으로 대부분 남성이다. 영웅은 일반적인 사람들을 능가하는 힘을 소유하고 있어서 어렵고 위대한 행위, 즉 영웅적 행위를 통해 명예를 얻는 인물이다. 영웅이 가진 힘에는 육체적 힘뿐만 아니라 정신적 힘도 포함된다. 영웅은 대부분 악당이나 비겁자에 반대되는 상이다.

영웅의 육체적, 심리적 특징과 외형적 모습은 그 상대방과 강하게 대비된다. 때로 영웅은 빛의 메타포를 통해 태양의 빛 속에 존재하며 금발머리, 광채를 발하는 눈, 빛나는 얼굴, 그리고 광채가 찬란할 칼을 가지고 있다. 영웅의 심성은 열려있으며 때로 신뢰할 수 있는 동반자를 대동한다. 그 동반자는 때로 사자이기도 하고 불사조이기도 하다. 영웅의 능력은 개연성과 자연의 법칙을 벗어나 있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영웅이 칼로 바위를 쪼개는 모습은 그가 일반적 존재와는 다른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자기가 만든 날개를 달고 날아올라 위험한 순간을 벗어나는 것은 그가 유한적 존재를 넘어서 있음을 뜻한다.

영웅의 상대역은 악을 대표하며 외형적으로 거인 또는 난장이, 괴물의 모습으로 일그러져 있고 야만적 폭력을 행사한다. 그는 어둡고 창백한 모습이며 지하세계, 숲속의 은신처, 동굴, 늪지대 등이 그의 영역이다. 그와 연결되는 동물은 늑대, 용이 대표적이다. 상상력에 의한 비개연적인 전통적 영웅상은 현대 문학에서 퇴색된다. 자연에 대한 신뢰, 행위의 심리적 개연성, 역사의 세부적 상황 분석을 통해 현실을 이야기 하려는 현대 문학작품에서 영웅 모티프는 작가의 관점과 의미 부여에 따라 다음과 같이 상이한 의미로 확대된다.

- 1) 영웅은 음모와 배반의 중심이 된다.
- 2) 영웅은 정복자의 상으로 그려져 현대 사회가 지닌 폭력성 비판의 동기를 만들어 준다.
- 3) 충성과 우정, 애국, 진정한 신앙의 의미를 새롭게 해석하기 위한 동인을 제공한다.

2. 모티프 유형

1) 반신(Halbgott)으로서의 영웅

여러 영웅들은 처음부터 영웅이 아니다. 이 인물은 처음에 아무 쓸모없는 젊은이일 수도 있으나 비범한 행위, 즉 괴물이나 악한 거인을 물리친다거나 복수를 해준다거나 아니면 인간을 억압으로부터 구해내는 영웅적 행위를 통해 영웅이 된다.

2) 민족영웅

각 민족의 설화나 전설에 등장하는 용사로서 영웅들이 있다. 이들은 민족의 시각에서 영웅으로 그려진다. 이 인물은 결코 신이 아니며 인간이다. 이 인물들은 주로 치명적인 운명에 맡겨져 있고 개인적인 행복과는 거리가 멀다. 명예와 충성, 용기가 이들의 가치를 결정해 주며 이들은 항상 자신을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들은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는 용기와 강한 의지를 갖춘 인물로서 민족의 모범적 인물상을 보여주는 기능을 갖는다. 고대 게르만 문학의 영웅노래 『니벨룽의 노래』에 등장하는 지그프리트가 대표적인 예이다.



<한스 가르베(1902-1981) 1950년 ‘노동 영웅’의 칭호를 받았다. 가르베는 사회주의 건설이 요구하는 새로운 인간형의 본보기로서 문학 작품의 소재로서 각광을 받았다>

3) 선전적 영웅

현대에 들어와 인위적으로 영웅이 만들어진다. 예를 들어 독일과 오스트리아에서는 2차 세계대전 패배 후에 이러한 영웅들이 만들어졌다. 선전을 목적으로 전쟁 영웅, 영웅적 죽음 등이 언급되면서 정치적 의도에 의한 영웅들이 탄생한다. 구 동독에서는 국가가 정한 노동기 준을 초과달성하는 모범적 노동자에게 “노동 영웅 Held der Arbeit”이라는 칭호가 주어졌다. 하이너 뮐러의 『혈값 노동자』는 이 유형의 대표적 인물을 소재로 한 극작품이다.

3. 서사구조

	내용
원인	범상치 않은 출생: 신의 자손으로, 또는 근친상간으로, 또는 마법의 영향과 작용으로 출생 일반인과 다른 탁월한 능력 보유
과정	신의 신탁을 받는다

	모험의 길을 걷는다
	일시적으로 유혹에 빠진다
	한 국가를 해방 시킨다
	새로운 국가를 세운다
	억압받는 자들을 구해낸다
	탁월한 능력을 통해 국가나 사회에 공헌한다.
	능력을 통해 사회로부터 영웅으로 추앙되거나 시기를 받는다.
결과	알 수 없는 운명에 의해 고난에 빠진다.
	오만함과 같은 자신의 오류로 치명상을 입는다.
	모든 것을 극복하고 하늘이 내린 자신의 임무를 수행한다.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명예롭게 귀향한다.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고 공동체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 죽는다.

4. 유형 및 서사구조의 예: 『혈값 노동자 Der Lohndrucker』 (1956/57)

작가	하이너 뮐러 Heiner Müller (1929-1995)
장르	희곡
생성년도	1956/57
등장인물	발케: 혈값노동자 카라스, 쉬렉, 게쉬케, 슈테티너, 레르카, 칼프스학세, 챔케, 크뤼거, 콜베, 안경잡이 등 노동자. 쇼른: 당서기

4.1. 내용요약

전쟁 직후 동독지역에 진정한 노동자국가가 건설되리라는 기대와 달리 노동자들은 동독 사회주의의 현실에 불만을 느낀다. 동독에는 빈곤과 불평등이 그대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자들은 원형 가마의 천정을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다. 노동기준을 초과 달성하면 보너스를 받기 때문에 레르카와 같은 노동자는 젓은 벽돌을 사용하다가 사고가 발생하기도 한다. 발케는 다른 노동자들에겐 불가능한 작업 능력로 특별 수당을 챙기는 “모범 노동자”이다. 노동 영웅인 발케와 일반 노동자들 사이에 알력과 갈등이 생긴다. 일반 노동자들에게 발케는 자신의 노동가치를 인식하지 못하고 작업기준만 올려 놓으며 수당만 챙기는 혈값노동자일 뿐이다. 발케는 노동자의 연대의식이 없는 배신자로 간주된다. 노동자들은 발케를 구타하기도 하며 작업을 방해한다. 노동자들은 파업을 시도하지만 실패하고 결국은 발케와 협력할 수밖에 없음을 인식한다.

4.2. 모티프 유형 및 서사구조

- 유형: 선진적 영웅

- 서사구조: 발케는 노동기준을 엄청나게 초과하는 탁월한 노동력으로 국가로부터 노동영웅의 칭호를 받는다. 때문에 일반노동자와는 다른 여유로운 생활을 즐기게 되고 다른 노동자들과 갈등관계에 빠진다. 그러나 마지막에 발케는 다른 노동자들에게 도움을 청하고 노동자들은 그의 청을 받아들이는 화해를 함으로써 이들이 사회주의 건설을 위해 서로 협력해야 하는 관계임이 나타난다.

원인	노동자들에 대한 국가의 노동력 증대 요구 일반노동자와 다른 탁월한 노동능력
과정	국가의 노동영웅 만들기 노동영웅과 일반노동자 간의 갈등 노동영웅에 대한 일반노동자의 질시 현실 사회주의의 모순 인식
결과	노동자들 간의 화해, 화합 사회의 모순과 갈등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논의

5. 작품 목록

헤벨 Friedrich Hebbel: 『니벨룽 족 Die Nibelungen』 (1861)

에센바하 Wolfram von Eschenbach: 『파르치팔 Parzival』

바그너 Richard Wagner: 『니벨룽의 반지 Der Ring des Nibelungen』 (1848/74)

뮐러 Heiner Müller: 『혈값 노동자 Der Lohndrucker』 (1956/57)

6. 연계 모티프

신탁, 계시, 금양모피, 성배, 괴물, 명예, 기사, 잔 다르크, 죽음, 희생, 운명

※ <모티프 연계를 통한 스토리생성의 예>

모티프 연계	영웅 + 전쟁 + 죽음 + 희생
스토리	신의 계시로 노예에게서 한 민족을 살릴 수 있는 영웅이 태어난다. 전쟁으로 민족이 몰락할 위기에서 영웅은 자신을 희생함으로써 민족을 살려낸다.